

|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br>모두의나라위원회 |       | 보도자료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시 | 2025년 5월 21일                    |
| 위원장                           | 고영인   | 담당자  |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br>(010-3906-2561) |

## 이재명 후보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대구경북 지역 역량 결집 박차

- 오늘 오후, 대구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 행사 직후, 대구 서남시장 일대 유세 합류
- “대구, 경북은 모두의나라, 진짜 대한민국 완성할 마지막 퍼즐”

지역순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대구로 향했다. 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4층) 에서 전진대회를 열어 대구 지역 주요 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전 의원(19, 20대 국회의원,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 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 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전유진 전)더불어민주당 대구달성군 지역위원장은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자부심이 깃든 곳이다. 최근의 혼란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귀하게 여긴 분들을 억눌리고 움츠러들게 했다” 고 진단하고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모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은 대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다” 고 했다.

홍의락 전 의원은 “농부가 땅을 갈아엎듯 우리 사회도 새판을 짜야한다. 판이 새롭게 들어서야 편 가르기, 극단적 대립을 없앨 수 있다. 모두의나라위원회가 해나갈 일” 이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허소 시당 위원장은 “대구에는 분열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다.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

두의나라위원회 이름값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며 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탤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대구 서남시장 일대에서 열린 지역유세에 나서 “계엄과 탄핵에도 반성없는 국민의힘은 대구시민의 자부심을 훼손했다. 대구에서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리잡고 대구의 자부심도 되찾는다. 4기 민주정부 출범에 힘을 모아달라” 고 호소했다. 유세를 마친 후 고 위원장은 서남시장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